

쓰타누마 늪

둘레 1km의 쓰타누마 늪(薦, 담쟁이덩굴은 일본어로 ‘쓰타’라고 함)은 산책로를 따라 있는 여섯 개 늪 중 가장 큰 늪입니다. 이 여섯 개의 늪은 수천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. 해발고도 1,298m의 아카쿠라다케 산(여기서 왼쪽으로 보임)의 사면이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로 붕괴되었고, 이 붕괴가 이 계곡의 경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. 산사태는 산 윗부분의 부드럽고 무른 암반에 부서지기 쉬운 바위가 형성될 때 발생합니다. 이 구조는 ‘두부 위에 놓여 있는 문진’에 비유되며, 약간의 충격에도 붕괴되어 엄청난 속도의 사태를 발생시킵니다.

[사진 설명]

산사태 발생 전의 아카쿠라다케 산 상상도(왼쪽)와 현재의 아카쿠라다케 산